

Research Center

한투의 아침

■ Today's Focus

2분기 서프라이즈와 향후 시장 흐름

■ 기업/산업분석

GS, 게임빌

■ 경제/투자전략/글로벌자산관리

이슈코멘트: 3개월 연속 음봉 출현, 길어질 수 있는 기간조정
채권전략 Weekly: Bond Portfolio Consulting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와이솔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현대백화점 외 5개 종목

■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투자 전략 | 박소연
해외 주식 | 백찬규
해외 채권 | 안재균

시황 분석 | 김대준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경제 분석 | 박정우

계량 분석 | 안혁
중국 시장 | 최설화
채권 분석 | 오창섭

스몰캡전략 | 정훈석
베트남시장 | 이소연
크레딧분석 | 김기명

유동성분석 | 송승연
글로벌 ETF | 배호진

자산배분전략 | 정현종
글로벌기업 | 정희석

2분기 서프라이즈와 주식시장 흐름

2분기 어닝시즌은 양호. 삼성전자 제외시 영업이익 확정치는 예상치를 상회 단, 시총 상위주가 속한 IT와 헬스케어의 낮은 서프라이즈 비율은 부담 요인 서프라이즈 비율은 이익 추정에 영향. 시즌 종료 전까지 관심을 유지할 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져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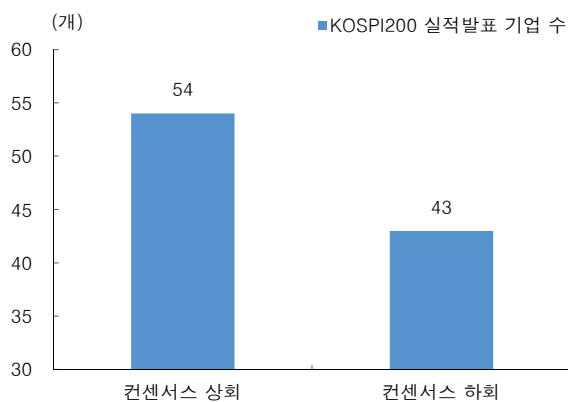
2분기 어닝시즌은
예상보다 양호

어느덧 다음주 중반이면 2분기 어닝시즌도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지금까지 확인된 결과는 상당히 양호하다. 7월 초 공개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이후 발표된 기업들의 과반수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덕분에 코스피 200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영업이익 합계는 예상치인 26.8조원보다 많은 27.1조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합계를 좀 더 살펴보면, 실적을 발표한 코스피 200의 97개 기업 중 54개가 예상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55.7%로 최근 5년간의 2분기 수치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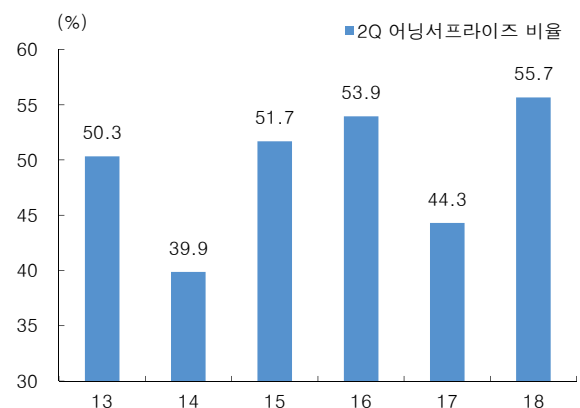
물론 기업 실적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서프라이즈 비율은 지금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코스피 200에 속한 83개의 기업들이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이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작년 2분기처럼 서프라이즈 비율이 40% 초반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83개 기업 가운데 절반만 예상치를 상회해도 서프라이즈 비율은 50% 초반에 충분히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코스피 200: 컨센서스 상회/하회 여부



주: 8월 9일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코스피 200 기업 대상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코스피 200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주: 2018년은 8월 9일 기준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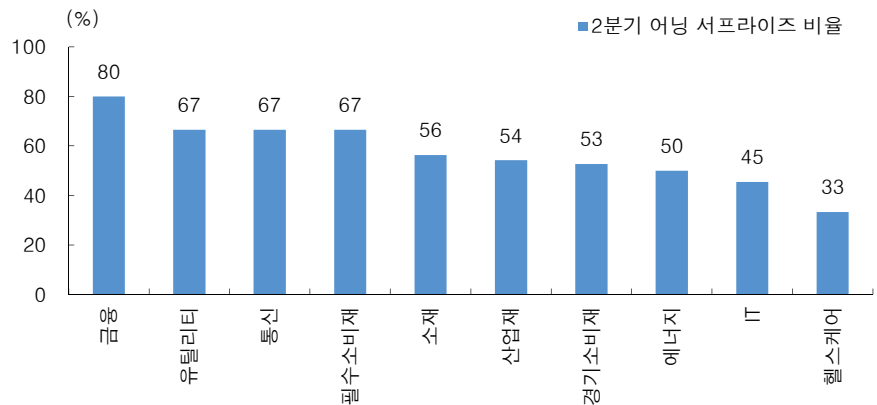
IT와 헬스케어 업종의
서프라이즈 비율이 낮음

다만 한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IT와 헬스케어의 서프라이즈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점이다. 시가총액 대형주가 포진된 IT에서는 11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삼성전자, LG전자, NAVER 등을 포함한 6개 기업이 예상보다 부진한 숫자를 기록한 영향에 서프라이즈 비율이 50%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헬스케어의 경우, 현재 6개 기업이 실적을 공개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미약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예상보다 부진했다. 셀트리온, 녹십자, 유한양행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도 남아 있어 서프라이즈 비율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시즌 종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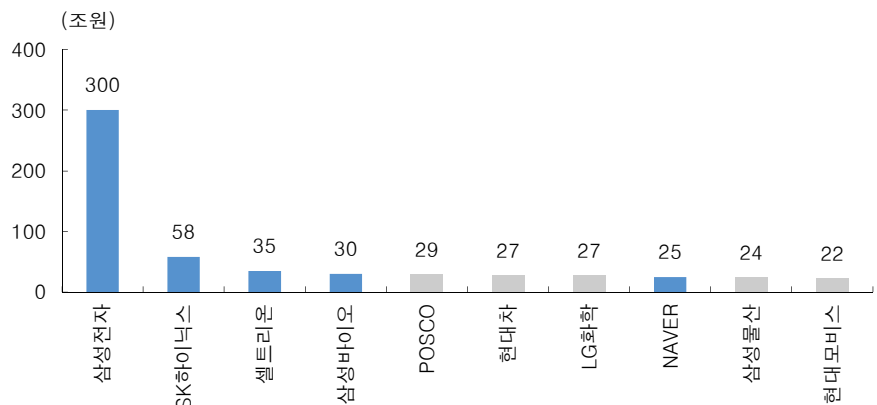
두 업종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속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이다. 코스피 시가총액 10개 기업 중 5개가 IT와 헬스케어인데, 해당 업종의 서프라이즈 비율이 낮으면, 애널리스트들의 다음 분기 추정치도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나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의 추정치 변화는 시장 전체의 컨센서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3] 업종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주: 8월 9일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코스피 200 기업 대상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주: 8월 8일 기준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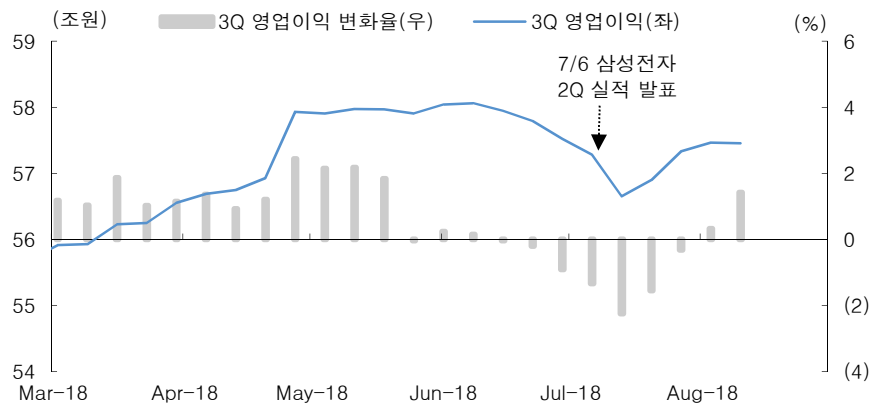
**3분기 이익 추정치는
반등에 시간이 더 필요**

실제로 3분기 추정치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 7월 6일 삼성전자의 잠정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전체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아래로 내려간 바 있다. 물론 최근에는 다른 종목의 양호한 실적을 반영해 추정치가 소폭 올라온 상태다. 그러나 6월에 기록했던 58조원에는 아직 0.7조원이 모자란다. 이익 추정치가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결국 국내 주식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선 이익 추정치가 높게 올라줘야 한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어닝시즌을 거치면서 추정치가 이전보다 상향되기는 했다. 그러나 지수가 한 단계 더 오르기 위해서는 이익 추정치의 추가 상향이 다시 한 번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시장은 작금의 횡보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어찌됐든 2분기 어닝시즌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물론 기업들의 실적이 전부 발표된 게 아니므로 마지막까지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IT, 헬스케어 업종이 주요 관심 대상이다. 또한 시가총액이 큰 다른 종목들의 실적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올수록 주식시장의 이익 추정치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시장 흐름에 분명히 반영이 될 것이다. 과거부터 항상 그래왔다.

[그림 5] 코스피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와 4주전 대비 변화율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GS(078930)

하회	부합	상회
----	----	----

순이익의 컨센서스 대비를 의미

내리막길은 끝났다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부합, 순이익은 환손실 등 일회성 요인으로 하회
 GS칼텍스의 고도화설비 본격 재가동으로 순이익 기여도 대폭 상승
 고도화설비 정상화 및 정제마진 반등 감안 시 역사적 저점에 거래될 이유 없음

Facts : 순이익은 일회성 요인으로 컨센서스 하회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2% 감소했고 컨센서스 및 당사 추정치와는 2% 내외의 차이로 예상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 주요 자회사인 GS칼텍스의 실적개선에도 불구하고 발전 자회사의 계절적 비수기 영향이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졌다. 순이익의 경우 컨센서스와 당사 추정치를 23% 하회했는데, 이는 법인세율이 57%로 전분기 48%와 추정치 44% 대비 높아졌기 때문이다.

Pros & cons : GS칼텍스 고도화설비 본격 재가동

GS칼텍스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108% 증가하며 GS에 대한 순이익 기여도가 전분기 40%에서 61%로 확대되었다. 당사 영업이익 추정치 또한 15% 상회했는데, 주요 이유는 화재사고로 지난 3분기부터 정지되었던 고도화설비가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가동되며 판매량과 마진이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정유부문의 매출액은 추정치를 10% 상회했는데, 이는 고도화설비 재가동으로 경유판매량이 전분기대비 20%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GS칼텍스의 순이익은 추정치를 33% 하회했다. 환손실과 유가 관련 파생상품 손실이 총 2,150억원 발생했기 때문이다.

Action : 역사적 저점에서 거래될 이유는 사라졌다

2분기 실적을 반영해 2018년 순이익 추정치를 13% 하향한다. 그러나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정제마진과 과도하게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을 감안하면 매수 시기가 판단된다. GS의 주가가 SK이노베이션 및 S-Oil과 반대로 간 가장 큰 이유는 고도화설비 화재사고에 있으나, 2분기를 기점으로 정상 가동됨을 확인했다. 2018년 ROE가 1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아시아 spot 정제마진도 타이트한 수급으로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역사적 저점을 하회한 PBR 0.5배에서 거래되고 있을 이유는 없다.

매수(유지)

목표주가: 91,000원(유지)

Stock Data

KOSPI(8/9)	2,304
주가(8/9)	52,500
시가총액(십억원)	4,878
발행주식수(백만)	93
52주 최고/최저(가원)	75,000/50,700
일평균거래대금(6개월, 백만원)	9,888
유동주식비율/외국인지분율(%)	52.7/20.2
주요주주(%)	허창수 외 47 인 45.6
	국민연금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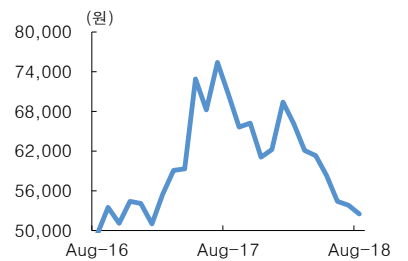
Valuation 지표

	2017A	2018F	2019F
PER(x)	6.0	5.7	4.2
PBR(x)	0.8	0.6	0.5
ROE(%)	13.4	10.9	13.1
DY(%)	2.9	3.4	3.4
EV/EBITDA(x)	7.6	4.6	3.8
EPS(원)	10,416	9,286	12,407
BPS(원)	81,634	89,118	99,723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2.1	(17.1)	(30.0)
KOSPI 대비(%p)	1.4	(14.5)	(27.3)

주가추이



자료: WISEfn

이도연

daniel.dy.lee@truefriend.com

<표 1> 2분기 실적 및 컨센서스

(단위: 십억원, %p)

	2Q17	3Q17	4Q17	1Q18	2Q18P	QoQ(%)	YoY(%)	컨센서스
매출액	3,855.6	4,229.2	4,207.1	4,456.2	4,581.3	2.8	18.8	4,509.8
영업이익	391.9	496.7	537.1	566.5	557.2	(1.7)	42.2	570.2
영업이익률(%)	10.2	11.7	12.8	12.7	12.2	(0.6)	2.0	12.6
세전이익	345.6	449.5	473.1	520.8	508.6	(2.3)	47.2	521.8
순이익	134.2	234.1	216.8	223.1	193.8	(13.1)	44.4	250.9

자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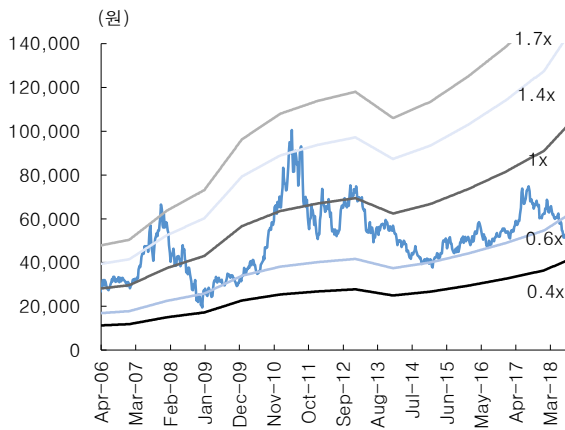
<표 2> 연간 실적 변경

(단위: 십억원)

	2018F			2019F		
	변경전	변경후	차이(%)	변경전	변경후	차이(%)
매출액	18,234.3	18,233.2	(0.0)	18,735.9	18,808.5	0.4
영업이익	2,243.4	2,162.7	(3.6)	2,536.2	2,465.1	(2.8)
영업이익률(%)	12.3	11.9		13.5	13.1	
세전이익	2,114.2	2,012.2	(4.8)	2,456.5	2,376.1	(3.3)
순이익	1,008.5	879.2	(12.8)	1,236.1	1,174.8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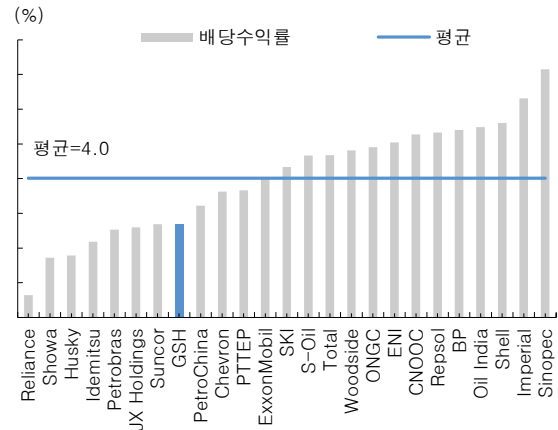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1] PBR 0.5배, 역사적 저점 이하로 하락한 주가



자료: 퀀티와이즈, 한국투자증권

[그림 2] 배당수익률(2018F)



자료: 블룸버그, 한국투자증권

<표 3> GS: 실적 전망

(단위: 십억원)

	1Q17	2Q17	3Q17	4Q17	1Q18	2Q18P	3Q18F	4Q18F	2017	2018F	2019F
매출액	3,918.1	3,855.6	4,229.2	4,207.1	4,456.2	4,581.3	4,642.8	4,552.9	16,209.9	18,233.2	18,808.5
영업이익	645.6	391.9	496.7	537.1	566.5	557.2	493.6	545.6	2,071.2	2,162.7	2,465.1
영업이익률(%)	16.5	10.2	11.7	12.8	12.7	12.2	10.6	12.0	12.8	11.9	13.1
순이익	401.1	134.2	234.1	216.8	223.1	193.8	210.5	252.1	986.2	879.2	1,174.8
증가율(% YoY)											
매출액	26.7	15.1	26.5	13.5	13.7	18.8	9.8	8.2	20.4	12.5	3.2
영업이익	99.2	(22.4)	19.3	5.0	(12.2)	42.2	(0.6)	1.6	18.1	4.4	14.0
순이익	163.4	(48.8)	47.1	(16.5)	(44.4)	44.4	(10.1)	16.3	18.3	(10.8)	33.6
증가율(% QoQ)											
매출액	5.7	(1.6)	9.7	(0.5)	5.9	2.8	1.3	(1.9)			
영업이익	26.2	(39.3)	26.8	8.1	5.5	(1.6)	(11.4)	10.5			
순이익	54.4	(66.6)	74.4	(7.3)	2.9	(13.1)	8.6	19.8			
컨센서스 추정 영업이익						570.2	560.0	566.0		2,273.5	2,328.1
차이(%)						(2.3)	(11.9)	(3.6)		(4.9)	5.9
컨센서스 추정 순이익						250.9	272.0	265.0		1,025.0	1,086.9
차이(%)						(22.8)	(22.6)	(4.9)		(14.2)	8.1
KIS 추정 영업이익 변화(%)							(12.8)	(3.1)		(3.6)	(2.8)

자료: GS, 한국투자증권

〈표 4〉 GS: 부문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원)

	1Q17	2Q17	3Q17	4Q17	1Q18	2Q18P	3Q18F	4Q18F	2017	2018F	2019F
매출	3,918.1	3,855.6	4,229.2	4,207.1	4,456.2	4,581.3	4,642.8	4,552.9	16,210.0	18,233.2	18,808.5
임대 수익	40.6	41.9	45.5	52.1	52.0	52.6	52.9	53.1	180.0	210.6	215.2
상표권 수익	12.4	15.2	12.6	15.5	13.6	18.1	15.7	15.6	56.0	63.0	62.6
지분법 손익	332.8	90.9	190.4	211.1	140.2	150.0	159.8	212.8	825.0	662.9	1,019.7
GS 칼텍스	281.4	67.6	181.2	188.8	90.1	117.5	138.3	184.2	719.0	530.1	895.3
GS 파워	22.3	11.0	2.6	8.7	24.5	8.8	2.4	8.9	45.0	44.6	45.1
GS 흡소평	8.5	6.4	7.0	12.4	16.1	12.5	7.9	8.6	34.0	45.1	34.5
연결자회사	3,532.3	3,707.5	3,980.8	3,928.4	4,250.4	4,360.6	4,414.4	4,271.3	15,149.0	17,296.7	17,511.0
GS 에너지	825.0	488.0	558.6	687.7	701.3	715.1	722.0	710.2	2,559.0	2,848.6	2,866.0
GS 리테일	1,845.8	2,088.4	2,259.3	2,073.1	1,994.8	2,198.9	2,444.2	2,325.9	8,267.0	8,963.8	9,289.4
GSEPS	191.0	231.3	213.7	246.8	292.0	263.6	218.0	251.7	883.0	1,025.3	1,045.8
GS 글로벌	811.9	805.4	908.2	861.9	1,004.5	1,027.3	917.2	870.5	3,387.0	3,819.5	3,857.7
영업이익	645.6	391.9	496.7	537.1	566.5	557.0	493.6	545.6	2,071.0	2,162.7	2,465.1
순이익	401.1	134.1	234.0	216.8	223.2	193.5	210.5	252.1	986.0	879.2	1,174.8

자료: GS, 한국투자증권

〈표 5〉 GS칼텍스: 실적 전망

(단위: 십억원)

	1Q17	2Q17	3Q17	4Q17	1Q18	2Q18P	3Q18F	4Q18F	2017	2018F	2019F
매출액	7,275.9	6,945.7	7,543.1	8,553.6	7,795.3	9,057.9	9,144.8	8,995.9	30,318.0	34,993.9	36,302.0
영업이익	585.0	210.0	578.5	628.1	280.7	584.6	402.3	553.6	2,002.0	1,821.1	2,574.7
영업이익률(%)	8.0	3.0	7.7	7.3	3.6	6.5	4.4	6.2	6.6	5.2	7.1
순이익	562.9	135.3	362.4	377.6	180.2	234.4	276.6	368.3	1,438.0	1,059.5	1,790.7
증가율(% YoY)											
매출액	32.5	12.5	14.2	14.2	7.1	30.4	21.2	5.2	17.7	15.4	3.7
영업이익	85.2	(72.6)	76.8	(13.2)	(52.0)	178.4	(30.5)	(11.9)	(6.2)	(9.0)	41.4
순이익	159.7	(71.1)	13.6	(6.9)	(68.0)	73.3	(23.7)	(2.5)	2.0	(26.3)	69.0
증가율(% QoQ)											
매출액	(2.9)	(4.5)	8.6	13.4	(8.9)	16.2	1.0	(1.6)			
영업이익	(19.2)	(64.1)	175.5	8.6	(55.3)	108.3	(31.2)	37.6			
순이익	38.8	(76.0)	167.9	4.2	(52.3)	30.1	18.0	33.2			

자료: GS, 한국투자증권

〈표 6〉 GS칼텍스: 부문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원)

	1Q17	2Q17	3Q17	4Q17	1Q18	2Q18P	3Q18F	4Q18F	2017	2018F	2019F
매출	7,275.9	6,945.7	7,543.1	8,553.6	7,795.3	9,057.9	9,144.8	8,995.9	30,318.4	34,993.9	36,302.0
정유	5,634.0	5,324.4	5,855.9	6,596.7	5,911.5	7,086.4	7,212.5	7,157.0	23,411.1	27,367.5	28,597.7
운할기유	278.7	277.4	281.0	297.7	340.8	361.4	314.4	311.6	1,134.8	1,328.1	1,246.3
석유화학	1,363.2	1,344.0	1,406.2	1,659.2	1,543.0	1,610.1	1,617.9	1,527.3	5,772.6	6,298.3	6,458.0
영업이익	585.0	210.0	578.5	628.1	280.7	584.6	402.3	553.6	2,001.6	1,821.1	2,574.7
정유	380.1	33.6	427.2	500.5	147.5	462.1	272.4	432.8	1,341.5	1,314.7	1,959.6
운할기유	46.0	51.4	58.4	40.5	66.3	62.6	59.6	54.6	196.4	243.1	230.3
석유화학	158.8	124.9	92.9	87.1	66.9	59.9	70.3	66.2	463.7	263.3	384.8
영업이익률(%)	8.0	3.0	7.7	7.3	3.6	6.5	4.4	6.2	6.6	5.2	7.1
정유	6.7	0.6	7.3	7.6	2.5	6.5	3.8	6.0	5.7	4.8	6.9
운할기유	16.5	18.5	20.8	13.6	19.5	17.3	19.0	17.5	17.3	18.3	18.5
석유화학	11.6	9.3	6.6	5.2	4.3	3.7	4.3	4.3	8.0	4.2	6.0

자료: GS, 한국투자증권

기업개요 및 용어해설

GS는 2004년 (주)LG를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GS칼텍스, GS에너지, GS리테일, GS흡소평, GS E&R GS EPS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음.

- 원유: 가공되지 않은 형태의 석유. WTI, Brent, Dubai유가 대표적인 유종
- 나프타(naphtha): 석유화학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초원료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원)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유동자산	2,473	2,875	3,720	4,487	5,694
현금성자산	504	723	1,413	2,117	3,26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166	1,155	1,518	1,566	1,614
재고자산	335	533	435	440	439
비유동자산	17,868	19,129	19,535	19,620	19,180
투자자산	5,999	6,693	6,526	6,526	6,526
유형자산	7,866	8,401	9,046	9,194	8,818
무형자산	1,890	1,788	1,724	1,661	1,597
자산총계	20,341	22,004	23,255	24,107	24,874
유동부채	3,771	4,451	5,175	5,257	4,82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489	1,819	1,833	1,855	1,850
단기차입금및단기사채	547	1,113	959	909	859
유동성장기부채	1,416	1,251	954	927	927
비유동부채	7,650	7,890	7,683	7,383	7,083
사채	4,061	4,506	3,746	3,546	3,355
장기차입금및금융부채	2,513	2,205	2,119	2,019	1,919
부채총계	11,421	12,341	12,858	12,641	11,912
지배주주지분	6,964	7,730	8,439	9,443	10,814
자본금	474	474	474	474	474
자본잉여금	1,270	1,188	1,188	1,188	1,188
기타자본	(3,107)	(2,943)	(2,943)	(2,943)	(2,943)
이익잉여금	8,348	9,186	9,894	10,899	12,270
비지배주주지분	1,956	1,932	1,958	2,023	2,147
자본총계	8,920	9,663	10,397	11,466	12,962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영업활동현금흐름	852	1,306	2,693	2,173	1,490
당기순이익	923	1,092	1,030	1,364	1,791
유형자산감가상각비	0	0	611	636	0
무형자산상각비	0	0	0	0	0
자산부채변동	(113)	7	1,026	108	(425)
기타	42	207	26	65	124
투자활동현금흐름	(524)	(1,418)	(386)	(733)	420
유형자산투자	(923)	(1,118)	(1,275)	(803)	358
유형자산매각	29	19	19	19	19
투자자산순증	(209)	(266)	167	0	0
무형자산순증	(42)	(45)	63	63	63
기타	621	(8)	640	(12)	(20)
재무활동현금흐름	(336)	335	(1,618)	(737)	(761)
자본의증가	75	0	0	0	0
차입금의순증	(180)	798	(1,296)	(377)	(341)
배당금지급	(172)	(188)	(171)	(171)	(171)
기타	(59)	(275)	(151)	(189)	(249)
기타현금흐름	5	(3)	0	0	0
현금의증가	(3)	219	690	703	1,150

주: K-IFRS (연결) 기준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매출액	13,462	16,210	18,233	18,808	19,277
매출원가	10,273	12,449	14,169	14,376	14,354
매출총이익	3,189	3,761	4,065	4,433	4,922
판매관리비	1,435	1,690	1,902	1,967	2,027
영업이익	1,754	2,071	2,163	2,465	2,896
금융수익	33	52	84	113	161
이자수익	29	33	75	104	151
금융비용	249	262	57	54	51
이자비용	238	255	53	50	48
기타영업외손익	91	46	(178)	(149)	(149)
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1,629	1,908	2,012	2,376	2,856
법인세비용	663	816	982	1,012	1,066
연결당기순이익	923	1,092	1,030	1,364	1,791
지배주주지분순이익	806	986	879	1,175	1,542
기타포괄이익	17	(146)	0	0	0
총포괄이익	941	945	1,030	1,364	1,791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828	837	879	1,175	1,542
EBITDA	1,754	2,071	2,774	3,101	2,896

주요투자지표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주당지표(원)					
EPS	8,509	10,416	9,286	12,407	16,283
BPS	73,546	81,634	89,118	99,723	114,203
DPS	1,600	1,800	1,800	1,800	1,800
성장성(% YoY)					
매출증가율	10.5	20.4	12.5	3.2	2.5
영업이익증가율	9.3	18.1	4.4	14.0	17.5
순이익증가율	63.7	22.4	(10.8)	33.6	31.2
EPS증가율	63.7	22.4	(10.9)	33.6	31.2
EBITDA증가율	9.3	18.1	33.9	11.8	(6.6)
수익성(%)					
영업이익률	13.0	12.8	11.9	13.1	15.0
순이익률	6.0	6.1	4.8	6.2	8.0
EBITDA Margin	13.0	12.8	15.2	16.5	15.0
ROA	4.7	5.2	4.6	5.8	7.3
ROE	12.1	13.4	10.9	13.1	15.2
배당수익률	3.0	2.9	3.4	3.4	3.4
배당성향	18.8	17.3	19.4	14.5	11.1
안정성					
순차입금(십억원)	7,697	8,003	5,962	4,870	3,369
차입금/자본총계비율(%)	95.9	94.0	74.8	64.5	54.5
Valuation(X)					
PER	6.4	6.0	5.7	4.2	3.2
PBR	0.7	0.8	0.6	0.5	0.5
EV/EBITDA	8.4	7.6	4.6	3.8	3.6

게임빌(063080)

하 회 부 합 상 회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대비를 의미

계속되는 흥행 신작 부재

비용 축소로 적자폭 축소되었으나 흥행 신작 부재 지속
RPG 시장 경쟁 심화 고려할 시 '탈리온'과 '엘룬'의 흥행 가능성 낮을 전망
다만 경쟁작이 제한적인 스포츠 게임 시장 진출은 기대할 부분

중립(유지)

Facts : 신작 흥행 실패에 따른 부진한 실적

2분기 실적은 매출액 245억원(-18.7% YoY, +4.0% QoQ), 영업손실 41억원(+3.1% YoY, +29.5% QoQ)으로 우리 추정치를 하회했다. 해외 매출은 '로열블러드'와 '사이언츠워' 출시 효과로 16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4.7% 증가했으나 기존 게임들의 부진으로 국내 매출은 84억원(-33.4% YoY, -21.2% QoQ)으로 줄었다. 영업비용은 28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7% 감소했다. 효율적인 마케팅 운영으로 마케팅 비용은 1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4.5% 감소했으나 인건비는 평균 임금 상승 효과로 102억원(+22.4% YoY, +16.5% QoQ)으로 증가했다.

Stock Data

KOSPI(8/9)	2,304
주가(8/9)	54,200
시가총액(십억원)	357
발행주식수(백만)	7
52주 최고/최저가(원)	92,500/48,750
일평균거래대금(6개월, 백만원)	3,574
유동주식비율/외국인지분율(%)	64.0/12.5
주요주주(%)	송병준 외 4인 33.6
	KB자산운용 5.0

Valuation 지표

	2017A	2018F	2019F
PER(x)	74.4	28.6	12.3
PBR(x)	2.5	1.4	1.3
ROE(%)	3.4	4.9	10.6
DY(%)	-	-	-
EV/EBITDA(x)	NM	NM	394.0
EPS(원)	1,240	1,897	4,400
BPS(원)	37,208	38,970	43,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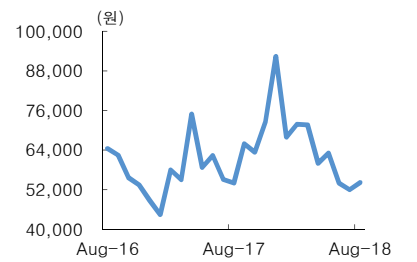
Pros & cons : RPG 신작 출시를 통한 실적 개선은 어려울 것

'로열블러드 글로벌'과 '사이언츠워' 출시로 해외 매출이 전분기 대비 증가한 점과 마케팅 효율화에 따른 적자폭 축소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2분기 출시된 신작들의 경우 매출 수준이 빠르게 하락해 향후 매출 기여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기존 게임들의 매출이 점차 감소 중이기 때문에 흥행 신작의 출시 없이는 의미있는 실적 개선이 어려울 것이다. 9월 출시가 예정된 '탈리온' 또한 경쟁이 심화된 국내 MMORPG 시장에서의 흥행 가능성이 높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10월에는 수익성이 우수한 자체개발 게임인 '엘룬'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NBA NOW(4Q18)' 출시로 스포츠 게임 다변화가 가능해 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4.0	(17.8)	3.4
KOSDAQ 대비(%p)	6.4	(11.4)	(19.4)

주가추이



자료: WISEfn

Action : 중립의견 유지. 비RPG 신작 흥행 여부에는 주목

게임빌에 대한 중립의견을 유지한다. 컴투스의 지분 가치를 고려할 시 하락 리스크는 제한적이며 연말에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하지 않고 타 장르 대비 성장이가파른 스포츠 장르 시장 진출 본격화를 통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다만 인지도 높은 IP와 공격적인 마케팅에도 흥행이 어려워진 국내 MMORPG 시장 내 '탈리온'의 흥행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 개발 게임인 '엘룬' 역시 경쟁 게임들과의 차별화 요소는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RPG 신작 출시를 통한 실적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다. 'NBA NOW' 등 비RPG 신작들의 출시 본격화 시기까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김성은

askim@truefriend.com

<표 1> 2분기 실적 및 컨센서스

(십억원)

	2Q17	3Q17	4Q17	1Q18	2Q18P	QoQ(%)	YoY(%)	컨센서스
매출액	30.2	25.4	22.2	23.6	24.5	4.0	(18.7)	27.4
영업이익	(4.2)	(3.8)	(8.6)	(5.8)	(4.1)	29.5	3.1	(3.6)
영업이익률(%)	(14.0)	(14.8)	(38.5)	(24.6)	(16.7)			(13.1)
세전이익	4.3	3.4	(5.4)	3.2	3.3	6.8	(22.4)	3.2
순이익	5.6	2.5	(2.8)	3.7	1.4	(62.7)	(75.5)	3.3

자료: 한국투자증권

<표 2> 분기 실적 및 추이

(십억원)

	1Q17	2Q17	3Q17	4Q17	1Q18	2Q18	3Q18F	4Q18F	2017	2018F	2019F
매출액	28.6	30.2	25.4	22.2	23.6	24.5	25.3	28.6	106.4	102.0	129.0
스포츠	2.9	4.3	4.4	5.2	4.8	5.4	5.6	6.3	16.8	22.1	40.5
RPG	21.1	21.2	16.3	13.0	15.0	15.1	15.8	18.2	71.6	64.1	70.9
기타	4.6	4.7	4.8	4.0	3.8	4.0	3.8	4.1	18.0	15.8	17.6
영업비용	31.6	34.4	29.1	30.8	29.4	28.6	29.8	31.8	126.0	119.7	133.7
인건비	8.2	8.3	7.9	8.2	8.7	10.2	10.4	10.7	32.6	40.0	45.9
마케팅비	1.9	4.1	1.2	4.3	4.6	1.2	2.8	3.0	11.4	11.6	10.5
지급수수료	10.1	9.8	8.4	7.3	6.4	6.1	6.3	7.1	35.6	25.8	31.9
로열티	6.2	6.9	6.3	5.8	4.5	4.9	5.0	5.6	25.2	20.0	22.5
기타	5.2	5.4	5.3	5.2	5.1	6.3	5.3	5.5	21.1	22.2	22.9
영업이익	(3.0)	(4.2)	(3.8)	(8.6)	(5.8)	(4.1)	(4.5)	(3.3)	(19.6)	(17.7)	(4.8)
영업이익률	(10.7%)	(14.0%)	(14.8%)	(38.5%)	(24.6%)	(16.7%)	(17.8%)	(11.4%)	(18.4%)	(17.3%)	(3.7%)
세전이익	4.8	4.3	3.4	(5.4)	3.2	3.3	2.7	6.9	7.1	16.1	37.9
순이익	3.2	5.6	2.5	(2.8)	3.7	1.4	2.1	5.1	8.6	12.2	28.4
순이익률	11.4%	18.6%	9.9%	(12.7%)	15.6%	5.5%	8.1%	18.0%	8.0%	12.0%	22.0%

자료: 게임빌, 한국투자증권

<표 3> 신작 출시 일정

게임	장르	출시 시기
탈리온	MMORPG	2018.9 아시아 주요 국가 출시 예정
엘룬	RPG	2018.10 국내 출시 예정
NBA NOW	스포츠	4Q18
게임빌 프로야구	스포츠	
코스모듀얼	PvP 캐주얼	

자료: 게임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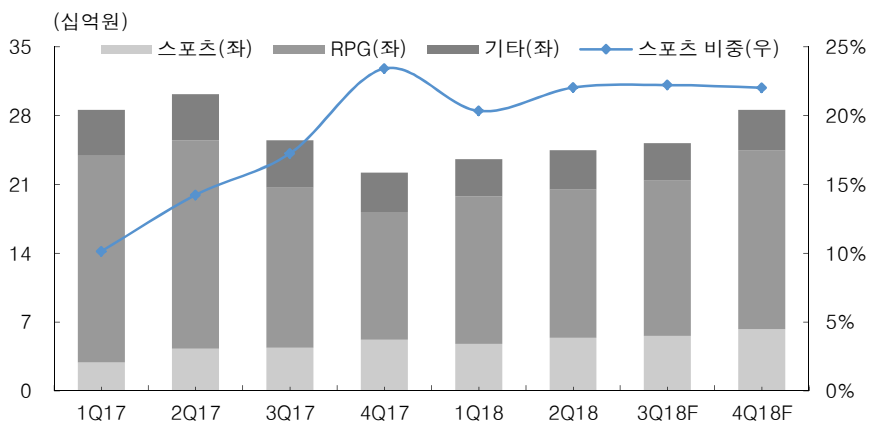
<표 4> 국내 게임 Google 매출 순위: MMORPG 경쟁 심화

순위	게임명	장르	퍼블리셔
1	리니지M	MMORPG	엔씨소프트
2	검은사막 모바일	MMORPG	펄어비스
3	리니지2 레볼루션	MMORPG	넷마블
4	뮤오리진2	MMORPG	웹젠
5	이카루스M	MMORPG	위메이드
6	모두의 마블	보드게임	넷마블
7	세븐나이츠	RPG	넷마블
8	피망 포커	카지노	네오위즈
9	라그나로크M	MMORPG	그레비티
10	페이트/그랜드 오더	RPG	넷마블

주: 8월 8일 기준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1] 전체 매출 중 스포츠 게임 매출 비중은 계속적으로 상승



자료: 게임빌, 한국투자증권

기업개요 및 용어해설

게임빌은 2000년 설립된 모바일 게임 개발사이며 2009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 '별이되어라', 'MLB 퍼펙트 이닝 시리즈', '크리티카: 천상의 기사단' 등 다수의 히트 게임들을 다양한 국가에서 서비스 중이며 글로벌 플랫폼 Hive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원)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유동자산	60	36	32	37	42
현금성자산	32	10	8	10	1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2	9	8	9	10
재고자산	0	0	0	0	0
비유동자산	266	300	308	336	371
투자자산	217	247	257	279	305
유형자산	26	28	31	34	37
무형자산	9	7	8	9	10
자산총계	326	336	340	374	413
유동부채	44	56	50	53	5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4	14	8	8	11
단기차입금및단기사채	1	1	1	1	1
유동성장기부채	22	36	36	36	36
비유동부채	47	37	36	38	39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및금융부채	33	17	17	17	17
부채총계	91	93	86	91	96
지배주주지분	234	241	253	281	315
자본금	3	3	3	3	3
자본잉여금	76	76	76	76	76
기타자본	(4)	(4)	(4)	(4)	(4)
이익잉여금	161	169	181	210	244
비지배주주지분	1	1	1	1	2
자본총계	235	243	254	282	316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영업활동현금흐름	4	(21)	(16)	(12)	(6)
당기순이익	29	8	12	28	35
유형자산감가상각비	2	3	3	3	3
무형자산상각비	2	2	2	3	3
자산부채변동	(1)	(2)	3	3	2
기타	(28)	(32)	(36)	(49)	(49)
투자활동현금흐름	(11)	3	14	14	8
유형자산투자	(4)	(2)	(6)	(6)	(6)
유형자산매각	0	0	0	0	0
투자자산순증	(4)	6	26	26	21
무형자산순증	(3)	(1)	(3)	(4)	(4)
기타	0	0	(3)	(2)	(3)
재무활동현금흐름	(44)	(2)	(0)	(0)	(0)
자본의증가	0	0	0	0	0
차입금의순증	(41)	(2)	0	0	0
배당금지급	0	0	0	0	0
기타	(3)	0	0	0	0
기타현금흐름	0	(2)	0	0	0
현금의증가	(50)	(21)	(2)	2	1

주: K-IFRS (연결) 기준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매출액	161	106	102	129	168
매출원가	63	50	46	52	71
매출총이익	99	56	56	77	97
판매관리비	94	76	74	82	92
영업이익	4	(20)	(18)	(5)	5
금융수익	0	0	0	0	0
이자수익	0	0	0	0	0
금융비용	1	2	2	2	2
이자비용	1	2	2	2	2
기타영업외손익	(6)	(5)	(2)	(4)	(6)
관계기업관련손익	39	33	37	48	48
세전계속사업이익	36	7	16	38	46
법인세비용	7	(1)	4	9	12
연결당기순이익	29	8	12	28	35
지배주주지분순이익	29	8	12	28	35
기타포괄이익	(5)	(1)	(1)	(1)	(1)
총포괄이익	24	7	12	28	34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24	7	12	28	34
EBITDA	9	(15)	(12)	1	11

주요투자지표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주당지표(원)					
EPS	4,549	1,240	1,897	4,400	5,381
BPS	36,468	37,208	38,970	43,174	48,333
DPS	0	0	0	0	0
성장성(% YoY)					
매출증가율	6.0	(34.1)	(4.1)	26.4	30.0
영업이익증가율	32.1	NM	NM	NM	NM
순이익증가율	46.8	(72.9)	53.0	132.0	22.3
EPS증가율	46.9	(72.7)	53.0	132.0	22.3
EBITDA증가율	16.3	NM	NM	NM	1,118.6
수익성(%)					
영업이익률	2.6	(18.9)	(17.3)	(3.7)	3.0
순이익률	18.2	7.5	12.0	21.9	20.6
EBITDA Margin	5.4	(13.8)	(12.0)	0.7	6.5
ROA	8.9	2.4	3.6	8.0	8.8
ROE	13.2	3.4	4.9	10.6	11.6
배당수익률	-	-	-	-	-
배당성향	0.0	0.0	0.0	0.0	0.0
안정성					
순차입금(십억원)	20	42	43	40	37
차입금/자본총계비율(%)	24.0	22.2	21.2	19.1	17.0
Valuation(X)					
PER	10.7	74.4	28.6	12.3	10.1
PBR	1.3	2.5	1.4	1.3	1.1
EV/EBITDA	37.2	NM	NM	394.0	35.6

3개월 연속 음봉 출현, 길어질 수 있는 기간조정

2,300p 이하는 deep value 영역이나 아직 반등 모티브는 부재한 상황
8월 코스피가 음봉으로 귀결될 경우 기간 조정은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 농후
전술적 대응은 유보적 관점에서 고성장주와 낙폭과대주에 국한할 필요

마켓 point

- 코스피가 6월 중순을 기점으로 200p가 넘는 가격조정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기술적 반등도 없이 기간 조정국면이 1개월을 넘어서고 있음. 가격 및 기간 조정 이후에는 항시 뒤따르기 마련인 낙관론이 이번에는 크게 대두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는 주지하다시피 1)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기대와 달리 악화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2) 대내외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익 전망치마저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3) 나스닥 기술주에 대한 회의론도 돌출되었기 때문. 이에 더해 4) 사실상 글로벌 금융시장이 양적긴축(QT) 체제로 변모하고 있어 신흥시장의 유동성은 취약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
- 코스피 2,300p선 이하는 deep value 영역으로 물러서기도 어려운 가격대라고는 하나, 과감한 베팅은 성급. 과거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3개월 연속 음봉을 기록한 코스피가 8월에 반등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4개월 연속 음봉을 기록하느냐에 따라 하반기 장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달라질 가능성. 전술적 대응은 코스피 정체국면 하에서도 상승 여지가 큰 고성장주와 낙폭과대주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

[그림 1] 수출 증가율 및 EPS 증감률과 코스피 등락률 추이



주: EPS증감률, 수출증가율, 코스피등락률은 3개월 이동평균값임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투자정보부
hunseog@truefriend.com

트레이딩 tip

- 코스피 월봉은 5~7월에 걸쳐 3개월 연속 음봉을 기록. 2000년 이후 코스피 월봉이 3개월 이상 연속 음봉을 기록한 것은 11차례였으며, 이 중 3번만 3개월 연속 음봉 후 반등에 성공. 나머지 8번 중 5번은 4개월 연속 음봉, 2번은 5개월 연속 음봉, 1번은 6개월 연속 음봉. 경험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3개월 연속 음봉 이후 반등할 확률은 27%에 불과한 반면 추가 하락할 확률은 73%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8월 코스피는 반등보다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음. 따라서 8월 중에는 투자심리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반등세 출현 여부를 관망하는 유보적 관점이 합리적

[그림 2] 코스피 월봉(연속 3개월 이상 음봉을 기록한 시기를 표시)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 코스피가 8월에도 음봉을 기록해 4개월 연속 음봉을 기록한 경우를 보면, 하락할 확률보다는 반등할 확률이 높음. 특히 금융위기 이후 2차례에 걸쳐 출현했던 4개월 음봉은 반등세로 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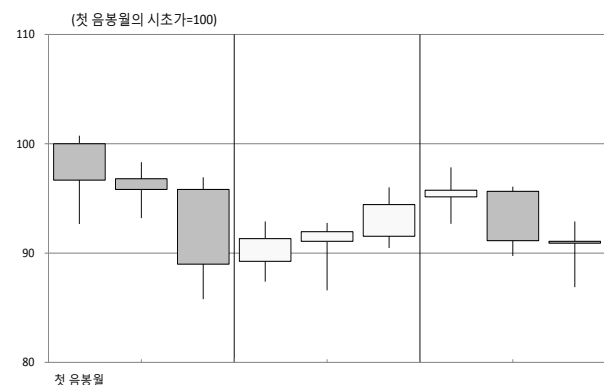
[그림 3] 4개월 연속 음봉 출현 시기의 코스피 흐름 비교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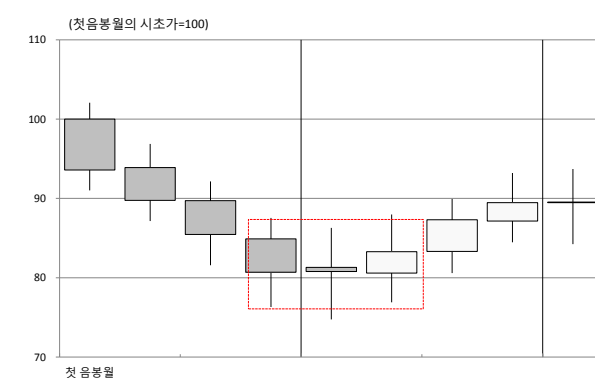
- 다만 4개월 연속 음봉 후에 나타난 코스피의 평균적인 반등 강도는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코스피가 급락 직전의 가격대를 빠르게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즉, 8월 코스피 월봉이 음봉으로 귀결될 경우에는 기간 조정이 연말까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그림 2] 연속 3개월 음봉 출현기의 평균적인 코스피 흐름



주: 연속 3개월 음봉 출현기는 3개월 연속 음봉 이후 반등한 경우임
 자료: 와이즈에프엔,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연속 4개월 음봉 출현기의 평균적인 코스피 흐름



주: 연속 4개월 음봉 출현기는 4개월 이상 연속 음봉 이후 출현한 경우임
 자료: 와이즈에프엔, 한국투자증권

- 따라서 길어질 수 있는 기간 조정국면 하에서의 전술적 대응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도 참고해 볼 필요
 1. 최근 나스닥 상장주가 FAANG에서 MAGA(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로의 교체 가능성이 대두된 이면에도 '성장성'이라는 잣대가 자리 잡고 있음. 나스닥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서도 고성장주에 대한 선호도는 장세흐름과 무관하게 굳건하게 지속될 전망. 5G 투자, 무인화 관련주 등 성장 가시성 높은 종목들에 대한 비중확대 유효
 2. 가격 조정 이후 기간 조정과정에서는 시장 급조정에 동조적 급락세를 보인 실적주들의 차별화가 진행되기 마련. 통상 당해년도에 이익 개선된 종목들의 경우 직전년도 평균주가보다 당해년도 평균주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년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평균주가 이하로 추락한 종목들을 선별해 보는 것도 좋은 시장 대안이 될 수 있음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Bond Portfolio Consul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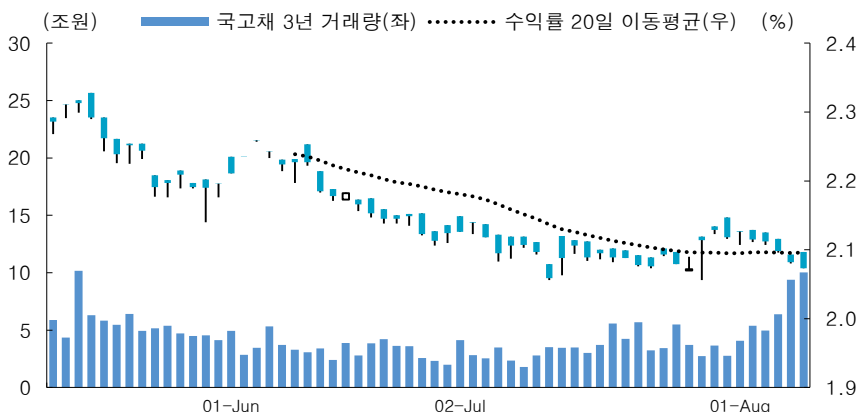
국내 채권시장은 기준금리 인상 가시화로 인해 채권금리 상승 추세 전환 시도 상황 8월 중반을 기점으로 다시 국내외 통화긴축 경계감이 부각되며 채권금리 상승 압력 미국 채권금리 상승과 국내 장단기 금리차 확대는 국내 채권금리 반등 가능성 시사

국내외 통화긴축 경계감 부각 유의

월 중반을 기점으로 국내외 통화긴축 경계감이 부각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겠다. 8월 초에는 영국과 인도가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월 중반 이후에는 미국 Jackson Hole Meeting(23~25일) 및 국내 8월 금융통화위원회의(31일)가 예정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ackson Hole Meeting에서는 미국의 9월 추가 금리인상 관련 언급이 주목되며,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이일형 금통위원의 금리인상 주장과 함께 매과 성향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함에 따라 국내 금리인상도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 추세 전환에 실패했다. 7월 초 국고채 3년 수익률은 연중 저점을 경신한 이후 하락 추세 과열에 따른 반등 양상이 나타난 가운데, 시장 추세 지표가 기준치(=0)를 상회하며 채권금리는 일시적으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미국 채권금리의 상승 추세 과열에 따른 조정 국면 진행 및 국내 장단기 금리차 축소 등으로 다시 채권금리 상승 압력이 약화되었다. 현재 국내 채권금리는 재차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나, 미국 채권금리 상승 추세 및 국내 장단기 금리차 확대 등이 향후 채권금리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

[그림 1] 국고채 3년 수익률 vs. 거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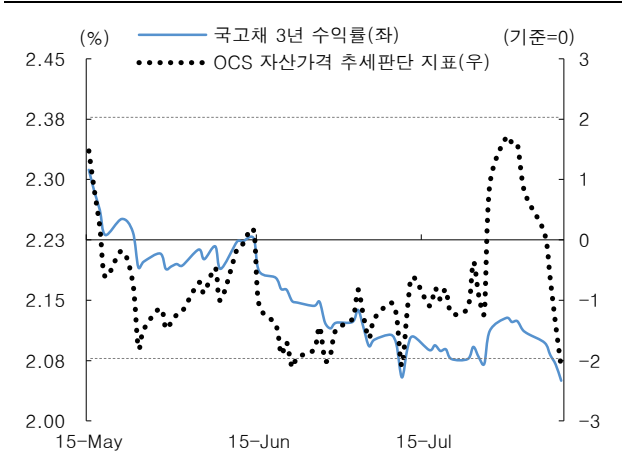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투자증권

오창섭
changsob@truefrien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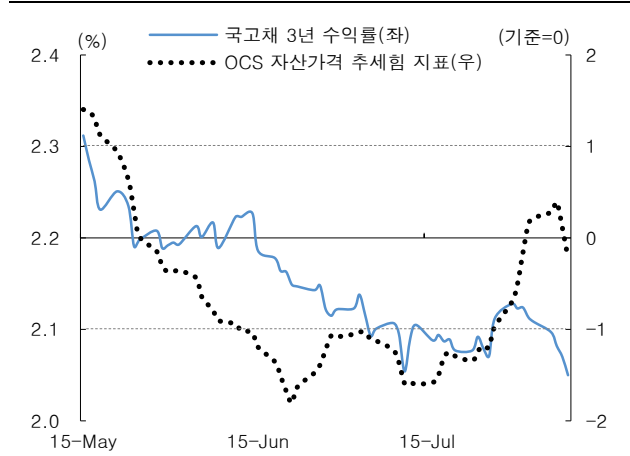
<채권투자 전략지표 Key Chart>

[그림 2] 국고채 3년 수익률 vs. 추세판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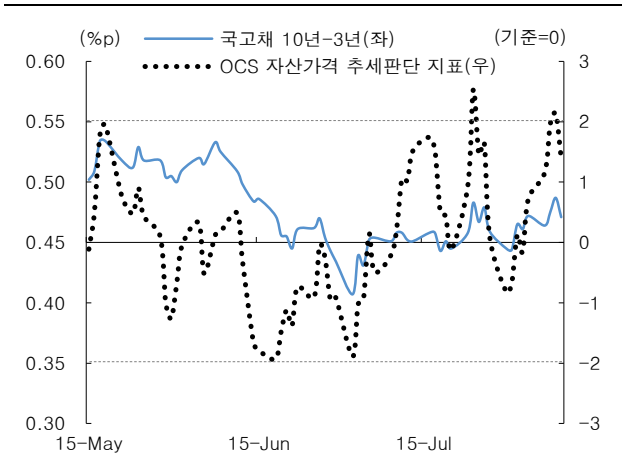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3] 국고채 3년 수익률 vs. 추세힘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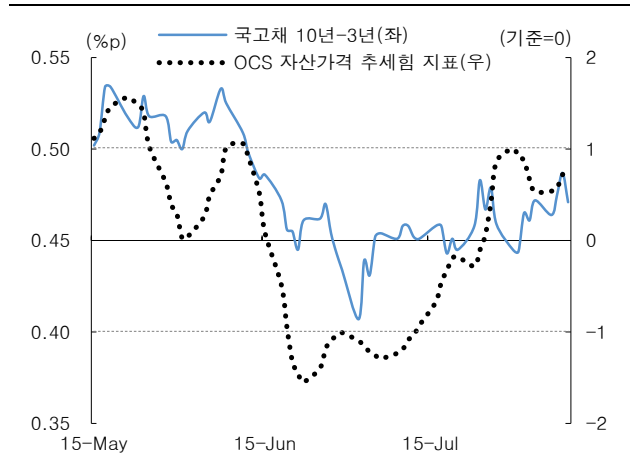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4] 국고채 10년-3년 금리차 vs. 추세판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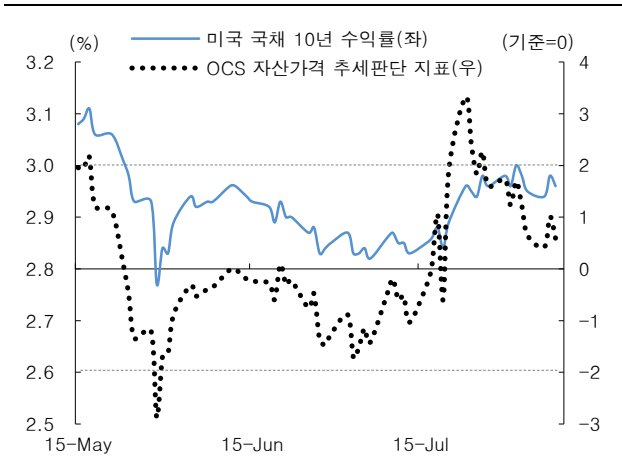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5] 국고채 10년-3년 금리차 vs. 추세힘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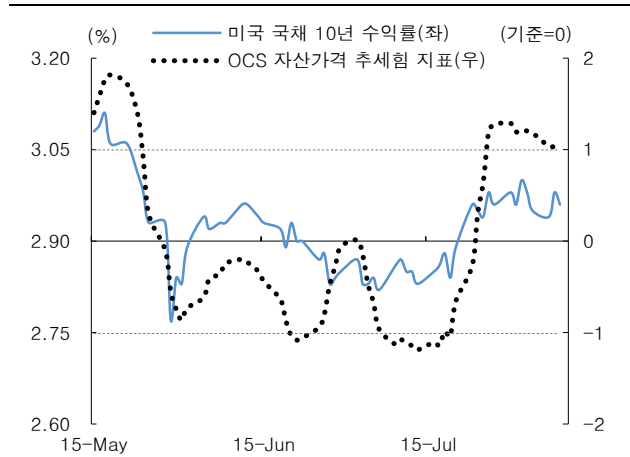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6]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 vs. 추세판단 지표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7]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 vs. 추세힘 지표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I. 채권 포트폴리오 전략

채권 포트폴리오 듀레이션 축소

향후 채권금리 상승 국면을 감안할 때 채권 포트폴리오 듀레이션 축소를 제안한다. 하반기 들어 국내 채권금리는 일시적으로 연간 저점을 하회한 가운데 미국 채권금리가 상승세로 전환함에 따라 국내외 채권금리 차별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7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 발생 등으로 채권금리가 반등했으며, 7월 수출이 전년대비 증가(+)로 전환되며 국내 경기둔화 우려도 다소 완화되었다. 또한 8월 중반을 기점으로 다시 국내외 통화긴축 경계감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금리 상승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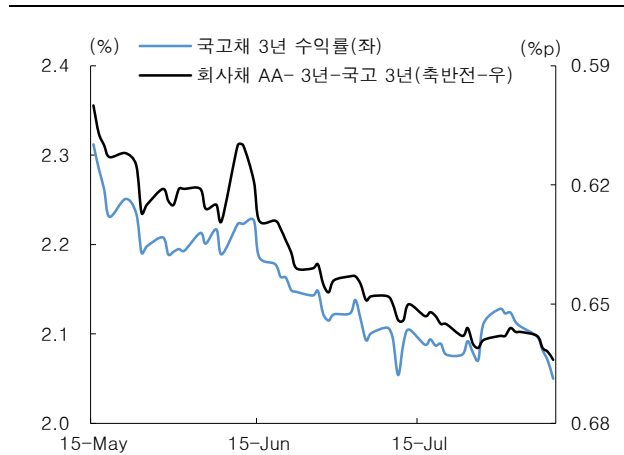
8월 중반을 기점으로 국내외 통화긴축 경계감

월 중반을 기점으로 국내외 통화긴축 경계감이 부각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겠다. 8월 초에는 영국과 인도가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월 중반 이후에는 미국 Jackson Hole Meeting(23~25일) 및 국내 8월 금융통화위원회의(31일)가 예정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ackson Hole Meeting에서는 미국의 9월 추가 금리인상 관련 언급이 주목되며,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이일형 금통위원의 금리인상 주장과 함께 매과 성향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함에 따라 국내 금리인상도 가시화되는 상황이다[표 1].

국내 채권금리 상승추세 전환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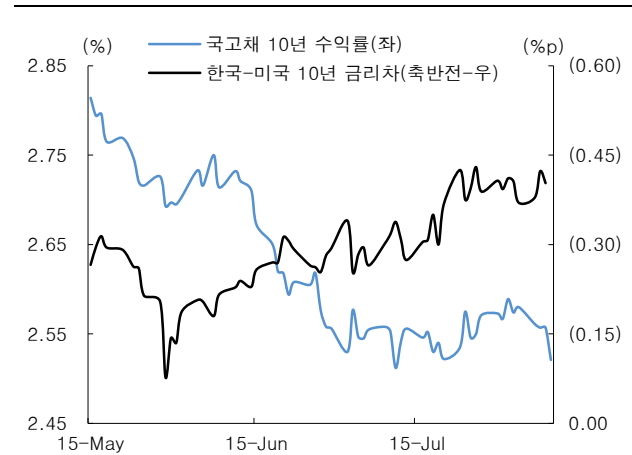
최근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 추세 전환에 실패했다. 7월 초 국고채 3년 수익률은 연중 저점을 경신한 이후 하락 추세 과열에 따른 반등 양상이 나타난 가운데, 시장추세 지표가 기준치(=0)를 상회하며 채권금리는 일시적으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미국 채권금리의 상승 추세 과열에 따른 조정 국면 진행 및 국내 장단기 금리차 축소 등으로 다시 채권금리 상승 압력이 약화되었다. 현재 국내 채권금리는 재차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나, 미국 채권금리 상승 추세 및 국내 장단기 금리차 확대 등이 향후 채권금리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그림 2~7].

[그림 8] 국고채 3년 vs. 회사채 AA- 3년 금리차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9] 국고채 10년 vs. 한국-미국 10년 금리차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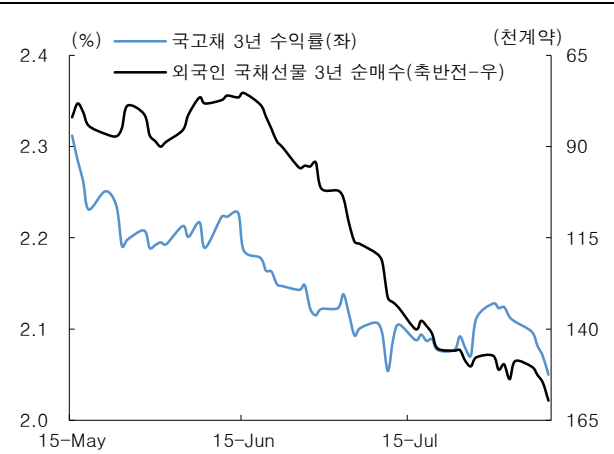
II. 국내외 채권시장 요인분석

〈표 1〉 채권시장 요인분석

구분	내용	평가 (기준=0)
경기여건	〈7월 수출개선 vs. 고용부진 상충〉 : 7월 들어 수출은 전년대비 6.2% 증가를 기록해 한국경제 경기둔화 우려 완화(조업일수 감소 수출증가율 4.0%). 그러나 다음주 예정된 7월 고용지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제조업 경기부진 등으로 경제구조 및 경기여건 측면 모두에서 부담요인이 지속되는 상황	0
통화정책	〈국내외 통화긴축 경계감 부각〉 : 8월 중반을 기점으로 국내외 통화긴축 경계감 부각 유의. 8월 들어 월초반 영국이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월후반 예정된 미국 Jackson Hole Meeting(23~25일) 및 국내 8월 금융통화위원회의(31일) 경계감이 부각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1
수급여건	〈국내 채권시장 수급여건 호조〉 : 외국인 투자자가 6월 중반 이후 8주 연속 3년 국채선물 순매수 기록. 국내 채권펀드 수탁고는 지난 2분기 이후 투자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연간 순유입 +5조원 가량). 8월 국고채 발행물량 감소 및 조기상환 물량 확대 등도 전반적으로 채권수급에 호재	+1
금융시장 동향	〈미국 채권금리 상승국면 진행〉 : 최근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은 3%대 진입을 시도하며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 향후 미국 채권시장은 Jackson Hole Meeting을 앞두고 통화긴축 경계감이 부각되는 가운데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채권금리 상승압력 예상	-1
금리수준	〈국고채 3년 적정범위 2.05~2.20%〉 : 현재 채권시장은 기준금리 1.50% 수준에서 통상적인 국고채 3년-기준금리 격차 0.30%p 및 1회 가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0.25%p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국고채 3년 2.05% 수준) 또한 한국과 미국 채권금리 역전(미국>한국) 부담은 채권금리 상승압력을 높이는 요인	0
기타요인	-	-
종합평가	〈국내 채권금리 상승국면 전환〉 : 현재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추세 전환 시도 진행. 최근 국내 채권금리는 적정범위 하단에서 반등한 가운데 국내 통화정책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및 미국 채권금리 상승 등으로 상승압력 지속. 8월 중반을 기점으로 다시 국내외 통화긴축 경계감 부각에 유의할 시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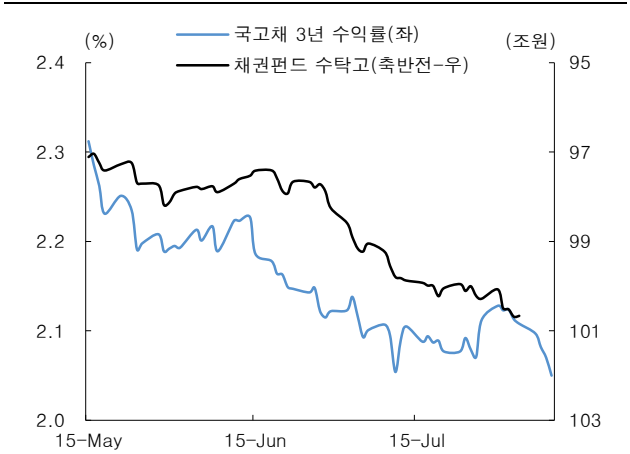
주: 중립(0), 호재(+1~+2), 악재(-1~-2)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국고채 3년 vs. 외국인 국채선물 3년 순매수



주: 외국인 국채선물 3년 순매수는 2018년 누적 규모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국고채 3년 수익률 vs. 채권펀드 수탁고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III. 국내 채권금리 동향

**국내 채권금리
상승추세 전환 시도**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 추세 전환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하반기 들어 국고채 3년 수익률은 연초 저점인 2.10% 수준을 하회하며, 한때 2.05%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채권금리는 하방경직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다시 상승국면 전환 신호가 나타났다. 현재 국고채 3년 수익률은 향후 1회(0.25%p) 가량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적정범위는 2.05~2.20% 수준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또한 7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에서는 금리인상을 주장한 이일형 금통위원을 포함해 매과 성향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했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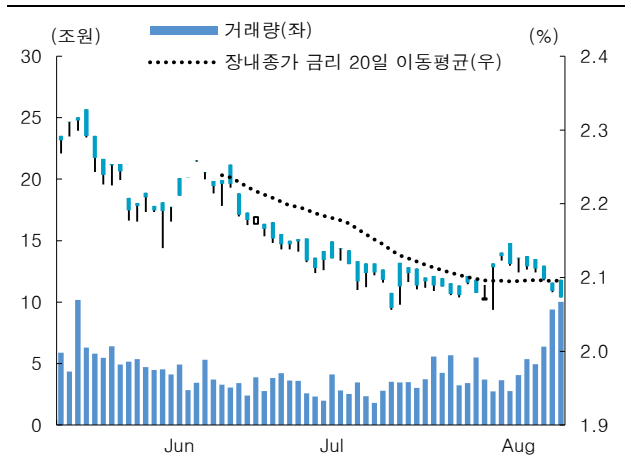
**국내 장단기 금리차
확대국면 재개**

채권금리를 선행하는 국내 장단기 금리차는 재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고채 10년과 3년의 금리차는 6월을 기점으로 축소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7월 들어 0.40%p 수준을 저점으로 다시 확대되었다. 이것은 국내 채권금리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금리 역전(-) 확대 등으로 상대적으로 장기금리 하락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0.20%p 내외의 역전(미국>한국) 폭을 기록했던 국고채 10년과 미국 국채 10년의 금리차는 현재 -0.40%p대 중반에 다다르며, 내외금리 역전(-)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그림 9, 13, 43].

**시장내재 시나리오 지표는
채권금리 상승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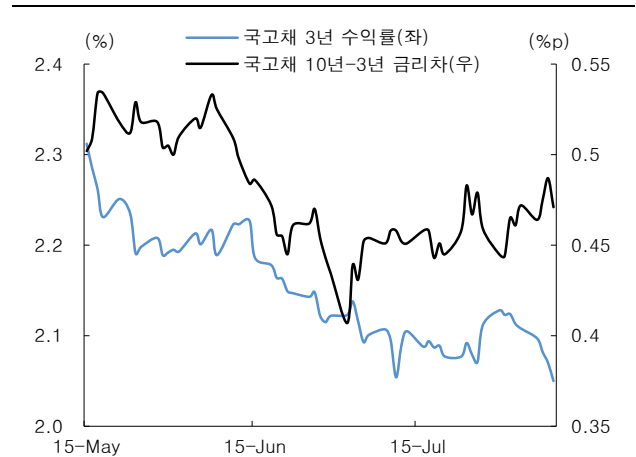
시장추세 및 변수간 상관관계를 반영한 시나리오는 채권금리 상승을 예상한다. 변수의 시차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시장추세의 경우 미국 채권금리는 향후 상승이 기대되고 있으며, 유가는 하락이 예상된다(국내 주가 및 원/달러 환율은 횡보). 또한 국내 채권금리와의 상관관계에서는 국내 주가·미국 채권금리의 경우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유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종합할 때 국내 채권금리는 미국 채권금리 상승과 유가 하락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림 14~19].

[그림 12] 국고채 3년 수익률 vs. 거래량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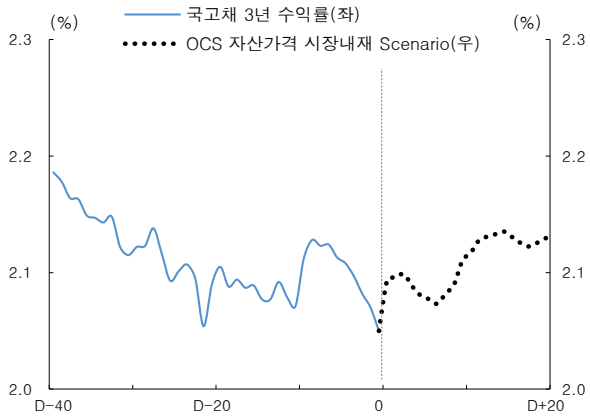
[그림 13] 국고채 3년 vs. 국고채 10년-3년 금리차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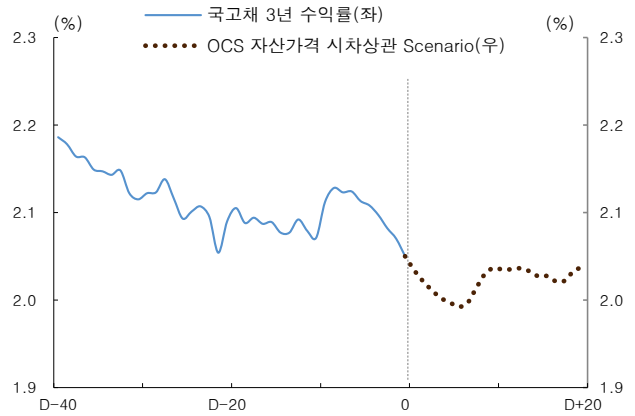
<시장내재 자산가격 Scenario>

[그림 14] 국고채 3년 수익률 시장내재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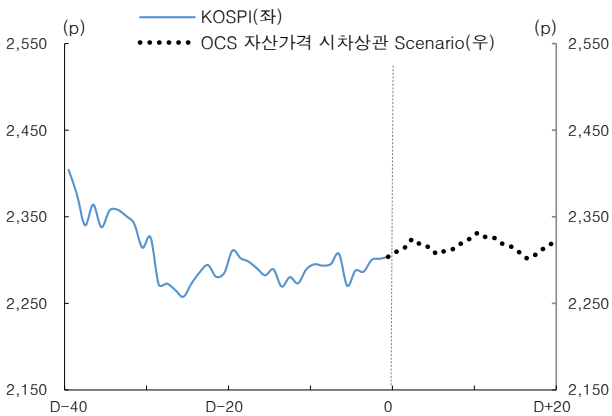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15] 국고채 3년 수익률 시차상관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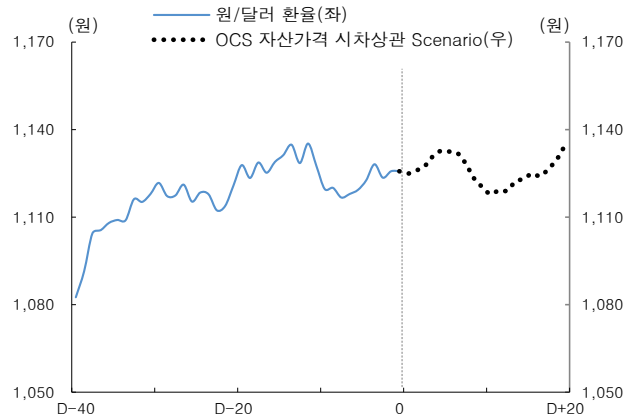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16] KOSPI 시차상관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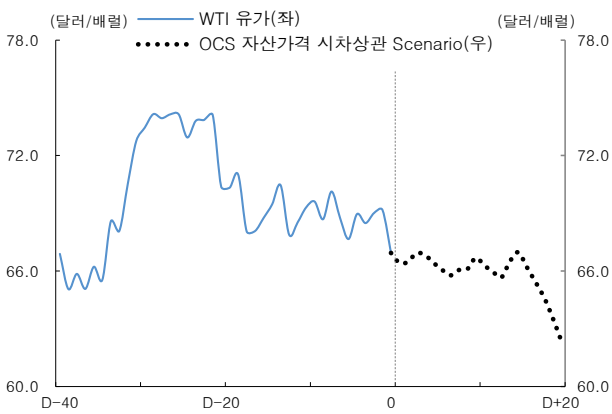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17] 원/달러 환율 시차상관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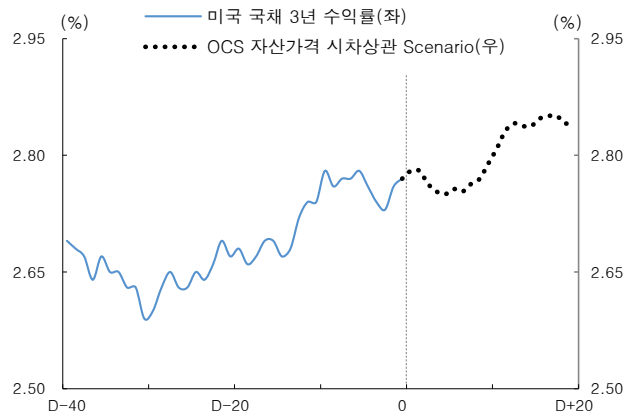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18] WTI 유가 시차상관 Scenario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19] 미국 국채 3년 시차상관 Scenario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증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옵션만기일을 맞아 양시장 동반 상승

- 뉴욕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격화와 유가급락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와 금융주 강세에 힘입어 나스닥 지수가 홀로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혼조세로 마감.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과 금융투자 매수에도 불구하고 옵션만기에 따른 외국인과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매도세가 상승을 제한하며 강보합세로 마감.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 기관 등 매수 주체가 일제히 순매수를 보이며 79P선에 바짝 다가섬. 미국과 무역전쟁 우려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전일 급락했던 중국증시 반등하고,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 발표에 따른 내수 경기 우려가 완화되며 시장에 호재로 작용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하반기 편성 확대, 텐트폴 수익성 극대화 등에 따른 성장 기대감에 스튜디오드래곤이 급등했으며, 5분기 연속 매출 성장세를 이어간 것은 물론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확대 계획을 밝히며 견조한 오름세를 보임. 자회사인 프라코에서 국내 유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커버를 생산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삼보모터스가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초강세를 보였으며, 중국 정책 변화 이후 급락했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했다는 소식에 OCI가 견조한 오름세를 보임. 2분기 실적 발표가 막바지에 다른 가운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호조를 기록한 제주반도체, 아이에스동서 등 실적 호조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 발표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통신장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임. 반면, 2분기 영업이익 전년동기대비 40.8% 감소하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넷마블은 신작 출시 일정 지연 악재가 겹치며 1% 이상 급락, 신저가를 기록했으며, 2분기 실적 부진과 하반기 업황 우려 속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나란히 신저가를 기록

종목/테마	내 용
스튜디오드래곤(253450) ▶102,500 (+6.77%)	하반기 성장 기대감에 급등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미스터 션샤인',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 대작 콘텐츠 편성과 해외 판권판매 매출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감에 급등세 -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7.6% 감소했으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9.6%, 213.3% 증가함
삼보모터스(053700) ▶9,630 (+20.07%)	자회사의 자율주행차 SOC 생산 사실에 초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 94.7%를 보유한 자회사 프라코에서 국내 유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커버를 생산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초강세. 현재 동사의 제품은 반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현대·기아차의 80% 가량을 담당하고 있음 - 아울러, 프라코가 하반기 상장을 추진 준비 중에 있어, 상장 시 동사의 기업가치 상승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
실적 호조주	2분기 실적 호조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3,489.9% 급증한 제주반도체를 비롯해 실적 적자폭이 감소한 데브시스터즈까지 실적 개선 소식에 강세 - 유니온커뮤니티(203450, +17.74%), 액트(131400, +15.65%), 아이에스동서(010780, +5.79%), 카카오(035720, +5.46%), 제주반도체(080220, +5.18%), 원하이텍(192390, +4.85%), 데브시스터즈(194480, +4.32%), 한섬(020000, +3.30%), 아시아나항공(020560, +2.63%) 등 강세
통신장비 관련주	삼성 투자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가 향후 3년간 180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4대 미래산업으로 AI, 5G, 바이오, 반도체 전장부품을 선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강세 - 이노와이어리스(073490, +13.42%), 콤텍시스템(031820, +13.14%), 케이멤더블유(032500, +6.27%), 솔리드(050890, +4.46%), 대한광통신(010170, +4.26%), 에프알텍(073540, +4.08%), CS(065770, +4.04%)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 용
인포뱅크(039290) ▶10,100 (+9.90%)	-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차 팀 신설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피에스엠씨(024850) ▶1,115 (상한가)	- 이에스브이의 경영참여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단기 유망종목: 와이슬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와이슬 (122990)	16,950 (-3.4)	17,550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통신 서비스의 개화로 기존 2GHz 이하에 이용됐던 표면탄성필터(SAW)에 더해 고주파를 선별하는 벌크탄성파필터(BAW)가 추가되어 동사 필터 사업부문의 수혜 전망 - SK텔레콤의 IoT 전용망 모듈 납품자로 선정됨에 따라 커넥티드 수요 증가로 IoT모듈 사업부문의 수혜 및 모듈 신사업에서의 성장 기대
디지털대성 (068930)	4,640 (+3.0)	4,505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에서의 르네상스러닝 콘텐츠 독점 판매권 확보로 4분기부터 매출 본격화 전망 - 2012년 비상예뮬 인수 이후 현금성자산을 이용한 M&A를 통해 지속적인 실적 개선 기대 - 브랜드파워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실적 성장으로 올해 최대 실적 전망
정상제이엘에스 (040420)	7,230 (+0.6)	7,190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성이 높은 온라인 부문과 해외 교재 매출이 증가하며 지속적인 외형성장 전망 - 수학부문에서의 외형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기대 - 배당수익률 6%에 육박하는 고배당 매력 보유
한국전자금융 (063570)	13,000 (+14.5)	11,350 (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무인자동화기기와 무인주차장의 수요 증가 전망 - ATM 관리 과점 사업자로 ATM기기 감소 추세에도 은행의 아웃소싱 비중이 낮아 향후 동사의 시장 확대 가능성 유효 - 국내 1위 CD VAN 사업자인 BGF핀링크를 흡수합병하고 매출이 확대됨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확대 전망
매일유업 (267980)	88,000 (-2.1)	89,900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수익 제품 비중 상승, 원유 손실 축소로 유가공 마진 개선 지속 - 중국향 분유 수출은 바닥 통과 후 점진적인 개선 진행 중 - 작년 2분기는 사드 영향으로 수출 분유의 기저가 낮아서 2분기 실적 개선 예상
LG이노텍 (011070)	155,500 (+7.6)	144,500 (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플이 올해 8~9월부터 신모델 3종을 출시할 예정으로 매출액과 이익이 빠르게 반등할 전망 - 신기술 카메라모듈 탑재가 지난해 1종에서 올해는 3종으로 늘어나고 출시 시기도 빨라져 광학사업부 수혜 예상 - 스마트폰 내 신기술카메라모듈 채용률이 지난해 15%, 올해 59%, 내년 93%까지 상승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LG이노텍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입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현대백화점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8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현대백화점 (069960)	98,200 (+0.9)	97,300 (8/2)	1,880	406	287	12,705	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품 소비 증가로 기존점 매출액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12월 천호점 그랜드 오픈 및 11월 무역센터점 면세점 오픈 등에 따라 이익 모멘텀 확대 전망 - 본업 호조와 신규 사업으로 이익 모멘텀을 확보하였지만 여전히 저평가 상태로 밸류에이션 매력 상존
하츠 (066130)	4,860 (+5.4)	4,610 (7/4)	112	7	6	495	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공기청정기 시장과 다른 환기청정기 시장 공략을 위해 공기청정 기능과 환기기능을 동시에 갖춘 환기청정기 제품 개발 - B2B 고객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B2C 공략을 위해서 하츠몰, 하츠앱, 소셜커머스, 하이마트로 판매 채널 확장 -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실내 공기질 종합 관리 기업인 동시에 대한 수혜 전망
테스 (095610)	23,150 (+1.8)	22,750 (7/3)	338	77.0	62.6	3,218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램 미세화공정과 3D낸드 적층수 증가의 어려움이 더 커지면서 안정화된 기존 공정에 장비투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 국내 메모리업체들의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64% 증가하면서 테스의 2018년 매출액도 전년대비 23% 증가할 전망 - 국내 증착장비업체들의 장비군 확대를 통한 점유율 상승과 중장기 성장스토리는 지속될 전망
신대양제지 (016590)	82,500 (+6.3)	77,600 (6/28)	688	103	76	18,962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65억원(+25.6% QoQ, +419% YoY)으로 전년 동기대비 5배가 넘는 이익 창출 예상 - 미국의 수출 지역인 중국과 동남 아시아 시장으로 한국 골판지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 상존 - 지배순이익이 peer그룹인 무림P&P(160억원) 대비 불과 5% 적지만 시가총액은 무림P&P의 절반에 불과한 염가 구간
포스코강판 (058430)	22,700 (+0.4)	22,600 (5/30)	944	25	23	3,757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연업체들의 가격 인상에 따른 스프레드 반등 예상 - 생산라인 증설에 따라 3분기부터 컬러강판 생산능력 증가 전망 - 냉연 스프레드 사이클의 저점으로 판단되며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삼성전기 (009150)	148,000 (+28.1)	115,500 (4/13)	8,016	702	427	5,656	2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부품간 전자파 간섭을 막아주는 부품) 호황이 구조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수혜국면 지속 전망 - 삼성전자의 듀얼카메라 채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 증가세 지속 전망 - 내년 갤럭시S10에 3D센싱카메라가 탑재된다면 이와 관련한 모듈 제작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음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기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된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한국시장 주요 지표

한국 주요지수	8/9(목) 종가	등락률(%)			
		1D	5D	1M	YTD
KOSPI	2,303.71	0.10	1.48	0.78	-6.64
KOSPI200	297.41	0.07	1.31	0.75	-8.42
대형주	2,219.38	0.11	1.72	1.03	-8.26
중형주	2,641.76	0.08	0.32	-0.78	-3.41
소형주	2,147.88	0.03	0.70	1.32	5.63
KOSDAQ	789.48	0.72	1.04	-2.33	-1.12
KOSDAQ150	1,297.40	1.34	1.30	-6.82	-8.23

수급	8/9(목)	1D	5D	1M	YTD
거래량	KOSPI	242	255	266	438
(백만 주, 기간 평균)	KOSDAQ	602	576	566	916
거래대금	KOSPI	5,925	5,215	5,007	7,136
(십억 원, 기간 평균)	KOSDAQ	3,642	3,342	3,292	5,761

(단위: %, bp)

금리	8/9(목)	1D	5D	1M	YTD
국고채 3년물	2.07	-1.50	-5.00	-3.00	-6.70
국고채 5년물	2.32	-0.80	-5.30	-2.80	-3.00
국고채 10년물	2.56	-0.20	-3.00	0.00	8.80
회사채 3년(AAA-)	2.46	-2.20	-9.50	-12.30	-8.20
회사채 3년(BBB-)	8.47	-2.20	-9.50	-14.00	-31.70

(단위: 원, %)

외환	8/9(목)	1D	5D	1M	YTD
원/달러	1116.93	0.27	0.82	-0.44	-4.43
원/100엔	1005.84	0.22	0.37	-0.20	-5.86
원/유로	1296.58	0.25	1.01	0.96	-1.58
원/위안	164.05	-0.15	0.45	2.47	0.00

업종 지수	8/9(목)	등락률(%)			
		1D	5D	1M	YTD
KRX 업종 지수					
자동차	1,483.20	0	2.64	5.32	-14.76
반도체	2,477.66	-1.09	-2.08	-2.29	-11
헬스케어	3,937.41	0.62	2.5	-4.71	2.4
은행	846.45	-1.27	-0.42	-3.3	-9.65
에너지화학	2,549.43	0.97	1.6	5.39	-7.77
철강	1705.08	-0.7	2.2	6.95	-16.95
방송통신	1,036.59	1.02	0.5	5.88	0.99
건설	645.86	-0.24	-0.89	3.8	15.15
증권	646.15	-1.21	-0.9	-7.22	-9.32
기계장비	553.15	-0.12	3.38	6.71	3.35
보험	1680.73	-0.28	1.91	0.6	-13.19
운송	555.75	-0.1	-0.36	4.3	-4.34
유틸리티	1,215.44	-0.34	-3.14	-0.84	3.21

업종 지수	8/9(목)	1D	5D	1M	YTD
KOSDAQ150					
기술주	1,562.00	0.81	1.01	-7.61	-8.94
소재	1,397.29	0.52	-2.97	1.15	-11.03
산업재	251.69	0.46	-0.75	-1.89	-19.55
필수소비재	759.35	-1.02	-1.86	-14.51	-25.68
자유소비재	1,325.71	4.23	5.37	-3.08	13.39
정보기술	639.10	0.32	-0.25	-2.34	-15.77
생명기술	4,276.28	0.90	1.44	-10.67	-9.22
문화기술	2,270.25	2.77	4.34	-4.56	1.53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분	개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국가, 지자체)	기타	
유가증권	매수	2,561	1,441	1,750	840.67	86.37	159.69	138.49	11.43	187.69	468.58	90.09
	매도	2,547	1,666	1,893	543.91	91.81	170.68	128.49	16.44	287.62	511.26	22.47
	순매수	13.98	-224.33	142.73	296.76	-5.44	-10.99	10	-5	-99.92	-42.68	67.62
	2018년 5월 누계	121.04	462.78	-746.82	-228.99	-15.6	-21.76	123.99	8.52	-382.81	-230.2	162.99
	2018년 누계	7386.85	-2945.43	-5,223	-2,996	-597.22	326.18	-734.67	-194.33	-423.37	-603.08	781.05
코스닥	매수	3,107	325.15	188.45	47.62	15.37	43.11	49.8	2.59	21.97	10.63	18.67
	매도	3,107	320.09	191.09	51.53	9.35	34.42	46.32	1.58	27.04	18.22	26.63
	순매수	0.26	5.06	2.64	-3.9	6.02	8.7	3.48	1.01	-5.08	-7.59	-7.96
	2018년 5월 누계	357.66	-149.4	-179.84	-72.9	0.25	-33.11	-62.1	-0.77	-3.95	-7.27	-28.41
	2018년 누계	3,245	-700.77	-644.84	264.84	108.7	244.03	-1084.98	-122.13	-138.39	82.99	-1899.79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반도체	821	증권	-235	IT가전	469	반도체	-2,111
	화학	433	은행	-176	소프트웨어	169	건강관리	-327
	건강관리	239	소매(유통)	-145	통신서비스	123	IT하드웨어	-166
	소프트웨어	234	미디어, 교육	-100	호텔, 레저서비스	84	은행	-134
	IT가전	167	건설, 건축관련	-97	유틸리티	59	자동차	-128
주요종목	삼성전자	1,076	넷마블	-326	LG전자	336	SK하이닉스	-1,097
	카카오	403	SK하이닉스	-236	NAVER	320	삼성전자	-981
	OCI	285	NH투자증권	-114	카카오	247	셀트리온	-426
	셀트리온	246	CJ CGV	-106	호텔신라	113	넷마블	-308
	LG전자	202	신세계	-102	LG화학	103	삼성전기	-227
	KODEX 코스닥		KB금융	-96	삼성SDI	102	POSCO	-138
	150 레버리지	179	삼성바이오로직스	-94	LG유플러스	88	하나금융지주	-124
	현대모비스	117	신한지주	-82	대림산업	80	롯데케미칼	-116
	한국전력	109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76	현대글로비스	71	삼성에스디에스	-96
	NAVER	99	KODEX 레버리지	-75	금호석유	70	CJ대한통운	-75
	삼성전기	98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미디어, 교육	215	건강관리	-165	건강관리	124	반도체	-107
	소매(유통)	149	반도체	-61	소프트웨어	37	호텔, 레저서비스	-66
	호텔, 레저서비스	103	소프트웨어	-57	화학	26	조선	-22
	필수소비재	8	화장품, 의류, 완구	-23	IT가전	20	필수소비재	-21
	조선	2	기계	-22	디스플레이	18	건설, 건축관련	-12
주요종목	CJ ENM	144	셀트리온헬스케어	-59	신라젠	90	셀트리온헬스케어	-108
	스튜디오드래곤	131	컴투스	-48	메디톡스	77	모두투어	-56
	파라다이스	74	메디톡스	-43	컴투스	48	RFHIC	-41
	제이콘텐트리	44	신라젠	-32	SK머티리얼즈	45	아프리카TV	-31
	모두투어	22	엘앤에프	-25	바이로메드	31	네패스	-31
	카카오M	22	제주반도체	-21	대주전자재료	24	원익IPS	-26
	에스엠	17	에코프로	-18	스튜디오드래곤	24	에이치엘비	-18
	아프리카TV	16	동진세미캠	-17	에코프로	24	해마로푸드서비스	-17
	SK머티리얼즈	13	휴젤	-16	케이엠더블유	23	미투온	-17
	매일유업	12	세코닉스	-16	서진시스템	18	제이콘텐트리	-16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락률

KOSPI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삼성전자	301,066	46,900	0.21	-7.97
SK하이닉스	56,784	78,000	-2.26	1.96
셀트리온	34,609	276,000	0.00	24.83
삼성바이오로직스	30,436	460,000	1.32	23.99
POSCO	28,641	328,500	-1.35	-1.20
LG화학	27,178	385,000	2.39	-4.94
현대차	26,922	126,000	-1.18	-19.23
NAVER	25,678	779,000	3.87	-10.46
삼성물산	23,806	125,500	-0.40	-0.40
현대모비스	22,681	233,000	0.87	-11.41

KOSDAQ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셀트리온헬스케어	12,661	90,100	-1.31	-17.0
CJ ENM	5,372	245,000	3.73	6.1
신라젠	4,327	62,200	5.60	-33.5
메디톡스	4,073	720,000	-0.11	48.5
나노스	3,863	7,870	-3.44	238.5
바이로메드	3,253	203,900	2.46	24.9
에이치엘비	3,123	84,900	19.75	119.7
필어비스	2,915	226,400	1.34	-8.6
스튜디오드래곤	2,874	102,500	6.77	57.7
포스코캠텍	2,871	48,600	-1.52	22.1

Global Asset Monitor

글로벌 주식		(단위: %)				
구분	지역/국가	증가	1D	5D	1M	YTD
지역	MSCI 세계	522.18	-0.03	0.90	1.50	1.79
	MSCI 선진국	2,166.15	-0.03	0.86	1.64	2.98
	MSCI 신흥국	1,079.73	-0.01	1.15	0.37	-6.80
DM	S&P500	2,857.70	-0.03	1.58	2.64	6.89
	Dow Jones	25,583.75	-0.18	0.99	3.26	3.50
	Nasdaq	7,888.33	0.06	2.35	1.70	14.27
	Russell 2000	1,686.88	-0.08	1.06	-1.04	9.86
	영국 FTSE 100	7,726.86	-0.64	1.99	0.51	0.51
	프랑스 CAC	5,485.70	-0.29	0.45	1.62	3.26
	독일 DAX 30	12,633.72	0.00	0.70	0.72	-2.20
	스페인 IBEX	9,736.20	-0.11	0.39	-1.92	-3.06
	일본 니케이	22,598.39	-0.20	0.38	2.48	-0.73
	홍콩 항셱	28,607.30	0.88	3.22	-0.28	-4.38
	EM	코스피	2,303.71	0.10	1.48	0.78
코스닥		789.48	0.72	1.04	-2.33	-1.12
중국 상해종합		2,794.38	1.83	0.95	-0.74	-15.51
홍콩 H지수		11,019.93	1.09	2.67	2.34	-5.89
인도 Sensex		38,020.87	0.35	2.30	5.81	11.64
베트남 VN		963.50	-0.29	1.04	5.29	-2.11
인도네시아 JCI		6,065.26	-0.49	0.89	4.44	-4.57
러시아 RTS		1,090.38	-2.10	-4.43	-8.61	-5.55
브라질 Bovespa		79,151.70	-1.49	-0.19	5.52	3.60
멕시코 Mexbol		49,894.57	-0.14	0.90	1.34	1.09
글로벌 업종		에너지	181.98	-0.20	0.75	-0.73
	소재	204.07	0.14	0.20	-0.45	-5.44
	산업재	275.13	0.23	0.65	1.35	-5.86
	경기소비재	252.65	0.13	0.71	-0.21	-4.75
	필수소비재	303.78	0.07	0.07	0.80	1.41
	헬스케어	586.92	-0.03	0.51	2.69	11.12
	금융	173.98	0.24	1.16	1.26	-4.42
	IT	409.32	0.03	1.19	3.29	12.64
	통신서비스	168.68	0.01	2.31	1.43	-4.80
	유틸리티	167.84	0.02	0.53	0.13	-1.66

글로벌 환율		(단위: %)				
구분	지수/국가	증가	1D	5D	1M	YTD
지수	달러 인덱스	95.22	0.13	0.05	1.21	3.36
	무역가중 달러 인덱스	124.21	-0.14	0.22	-0.01	4.32
미주	브라질	3.77	-0.52	-0.58	2.67	-12.19
	멕시코	18.52	-0.28	0.66	3.61	6.15
아시아	한국	1,116.93	0.27	0.82	-0.44	-4.43
	일본	111.15	-0.15	0.46	-0.27	1.39
	중국	6.82	0.22	0.33	-3.00	-4.60
	대만	1.35	0.17	-0.77	0.64	5.22
유럽	유로존	1.16	-0.11	0.10	-1.31	-3.40
	영국	1.29	0.07	-0.97	-2.78	-4.60
	러시아	65.89	-0.43	-3.85	-5.16	-12.45

주: 달러 대비

글로벌 채권(10Y)		(단위: bp)				
지역	국가	증가	1D	5D	1M	YTD
미주	미국	2.96	-0.33	-2.92	10.03	55.13
	캐나다	2.36	-1.00	-0.90	23.10	31.60
	브라질(USD)	11.41	17.60	12.20	11.10	115.70
유럽	멕시코	7.69	0.20	-4.80	-3.90	3.40
	독일	0.39	-0.90	-7.10	8.90	-3.80
	영국	1.31	-0.60	-7.00	5.50	11.70
아시아	프랑스	0.72	-0.80	-6.00	8.20	-6.30
	이탈리아	2.90	-1.80	-1.70	22.90	88.00
	러시아	5.07	14.80	38.10	41.90	119.60
	한국	2.56	-0.20	-3.00	0.00	8.80
중국	일본	0.12	0.20	-1.10	7.50	6.70
	중국	3.55	2.40	7.30	-0.10	-35.10
	호주	2.65	-2.40	-7.60	4.20	2.30
	인도	7.74	-4.10	-2.30	-15.10	41.40

원자재		(단위: %, USD/oz, bu, MT)				
구분	지수/상품	증가	1D	5D	1M	YTD
지수	S&P 원자재 지수	458.41	-1.77	-0.78	-4.72	3.61
	LMEX 지수	3,012.20	0.85	1.65	-2.90	-11.90
	CRB 지수	424.80	-0.20	-1.04	-2.75	-1.74
에너지	원유(WTI)	66.85	-0.13	-3.06	-9.48	10.64
	원유(Brent)	72.27	-0.01	-1.61	-7.43	8.08
	천연가스	2.95	-0.14	4.58	4.14	-0.27
금속	금	1,215.30	0.22	0.39	-3.52	-7.18
	은	15.47	0.21	0.52	-3.66	-9.80
	구리	6,173.00	-0.03	0.02	-1.74	-14.82
	아연	2,612.00	0.46	2.23	-4.50	-21.30
농산물	알루미늄	2,106.00	3.34	2.63	1.25	-7.14
	S&P 농산물 지수	300.58	0.55	2.18	5.86	6.54
	옥수수	385.75	0.19	1.18	5.11	0.46
	밀	587.50	-0.63	0.82	11.90	21.89
대두	907.50	-0.33	1.11	4.07	-6.99	

변동성		(단위: %)				
구분	지수	증가	1D	5D	1M	YTD
미국	VIX	10.64	-1.94	-12.72	-16.15	-3.62
유럽	VSTOXX	12.69	-1.37	-12.52	-9.82	-6.09
한국	VKOSPI	11.44	-4.83	-15.07	-22.75	-5.14

한 눈에 보는 매크로 일정

월	화	수	목	금
30	31	1	2	3
美> 실적발표: Caterpillar 유럽> 7월 소비자대지수 (-0.6, -0.6, -0.6)	韓> 실적발표:KT&G, 송원산업 DGB금융지주, 롯데케미칼 美> 실적발표: P&G, Pfizer 7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대지수 (127.4, 126.0, 126.4) 유럽> 2Q GDP SA YoY (2.1%, 2.2%, 2.5%) 中> 7월 제조업 PMI (51.2, 51.3, 51.5) 日> BOJ 통화정책회의 (-0.1%, -0.1%, -0.1%) 6월 유효구인배율 (1.62, 1.60, 1.60) 6월 광공업생산 MoM (-2.1%, -0.3%, -0.2%)	韓> 실적발표:하나투어, 대우건설 7월 수출 YoY (6.2%, 7.4%, -0.1%) 7월 CPI YoY (1.5%, 1.7%, 1.5%) 美> 실적발표: Apple, T-Mobile FOMC 금리결정 (2.00%, 2.00%, 2.00%)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2.6%, n/a, -0.2%) 7월 마켓 제조업 PMI (55.3, 55.5, 55.5) 유럽> 7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55.1, 55.1, 55.1) 中> 7월 차이신 제조업 PMI (50.8, 50.9, 51.0)	韓> 실적발표:대림산업, 한국타이어 美> 실적발표: Tesla, DowDupont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18, 220, 217) 6월 제조업수주 (0.7%, 0.7%, 0.4%) 6월 내구재주문 (0.8%, n/a, 1.0%)	韓> 실적발표: 스카이라이프, 美> 실적발표: Berkshire Hathaway, AIG, Kraft Heinz, Activision 6월 무역수지 (-46.3, -46.5, -43.1) 7월 비농업고용자수 변동(천명) (157, 190, 213) 7월 실업률 (3.9%, 3.9%, 4.0%)
6	7	8	9	10
	韓> 실적발표: GKL, 덴티움	韓> 실적발표: CJ제일제당,컴투스 넷마블, 파라다이스 美> 실적발표: Disney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3.0%, n/a, -2.6%) 日> 6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1175.6, 1222.2, 1938.3)	韓> 실적발표: 이마트, 신세계, 카카오, 삼성화재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20, 218) 6월 도매재고 MoM (n/a, 0.0%, 0.0%) 中> 7월 PPI YoY (4.6%, 4.5%, 4.7%) 7월 CPI YoY (2.1%, 2.0%, 1.9%) 日> 7월 핵심기계수주 MoM (-8.8%, -1.0%, -3.7%)	韓> 실적발표: 삼성생명, 롯데쇼핑, 롯데하이마트, 한화생명 美> 7월 CPI MoM (n/a, 0.2%, 0.1%) 日> 7월 PPI YoY (n/a, 2.9%, 2.8%) 2Q GDP SA QoQ (n/a, 0.3%, -0.2%) 6월 3차 산업지수 MoM (n/a, -0.3%, 0.1%)
13	14	15	16	17
	韓> 실적발표: 농심, 휴온스, 팬오션, 삼성증권 유럽> 2Q GDP SA YoY (n/a, n/a, 2.1%) 8월 ZEW 서베이 (n/a, n/a, -18.7) 中> 7월 광공업생산 YoY (n/a, n/a, 6.0%) 日> 7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2.1%)	韓> 휴장(광복절) 실적발표: CJ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n/a) 7월 소매판매 추정 MoM (n/a, 0.3%, 0.5%) 7월 광공업생산 MoM (n/a, 0.3%, 0.6%)	韓> 실적발표: 금호타이어 美> 실적발표: Walmart, Cisco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7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285, 1173)	韓> 7월 실업률 (n/a, n/a, 3.7%) 美> 실적발표: Nvidia 7월 선행지수 (n/a, n/a, 0.5%)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n/a, n/a, 97.9) 유럽> 7월 CPI YoY (n/a, n/a, 2.0%)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